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역사서술론: '타자'에 관한 탐구로서 글쓰기*

장 세 룡

- I. 서론
- II. 역사의 불확실성
- III. 타자의 발화에 관한 해석과 기록
- IV. 타자성(alterité)의 생산
- V. 결론

I. 서론

가톨릭 지성¹⁾이며 역사가인 미셸 드 세르토(1925-86)는 1968년 5월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참여한 경험을 계기로²⁾ 초기의 근대 종교사 연구를 넘어 한층 폭넓은 탐구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에게 역사가란 유한한 주변부적 존재로서, 기존의 전망을 가로질러 변경을 떠돌며 '결핍된 현재'를 계산하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2년 전문연구인력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KRF-2002-075-A00022).

1) 세르토는 사부아 도(道) 상베리(Chambéry)의 소귀족 가문 출신으로, 그르노블과 리용 대학에서 고전과 철학을 공부하였으며, 1950년에 예수회에 가입하여 1956년 서품받았다. 1960년 소르본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주로 가톨릭 종교사와 지성사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 때 그는 라캉(J. Lacan)이 1964년에 설립하고 주도한 프로이트 학파의 세미나에 참여하여 심리분석에 주목하는 한편, 역사철학과 정치, 교육, 문화연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1978-84년간 샌-디에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직을 거쳐, '사회과학 고등연구원(EHESS)' 연구지도교수(directeur)로 재임중 죽음을 맞았다.

2) Luce Giard, "Demain déjà se donne à naître," in Michel de Certeau, *La prise de parole et autres écrits politique*(Seuil, 1968, 1994), p. 11.

고³⁾ ‘부재하는 과거’를 배열하는⁴⁾ 독특한 수행자이다. 세르토가 자신의 역사 서술에서 전범으로 삼은 역사저술은 칼 마르크스의 프랑스 혁명사 삼부작, 그 가운데서도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이었다. 마르크스의 저작 가운데 역사서에 가장 근접하지만, 역사가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한 이 저작이 예수회 수도사 세르토에게 지적 영감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롭다. 세르토가 역사서술론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중심에 세운 인물은 예수와 프로이트 그리고 마르크스이다. 그들이 수행한 역할은, 마치 사건으로서 1789년 대혁명과 1848년 2월 혁명 그리고 1968년 5월 혁명 이후의 사회정치적 현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세르토의 사상을 전개하는 과정에 수행하는 역할과 궤도를 같이 한다.

지금까지 세르토의 역사이론은, 그 자신이 프랑스의 주류학계나 제도권에 서 한참 벗어나 있었을 뿐 아니라, 독특한 관점과 서술 방식을 견지한 탓에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에서 상당히 비껴난 감이 있다. 적잖게 아쉬운 죽음 직후 네권의 추모 특집 저술이 발간된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는 한참동안 평가가 소홀하였던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물론 영어권에서도 그동안, 대가의 반열에 든 인물이란 긍정적인 평가와,⁵⁾ 이에 맞서서, 현실 대신에 언어, 서구의 문화적 전체보다는 원주민의 종(민)족지에만 집중하여 역사학을 황폐화 시킨 인물이란 부정적 평가⁶⁾가 교차하였지만 어느 것이든 피상적 평가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세르토를 국제적으로 알린, 수준 높은 종합

3) Michel de Certeau, *L'Absent de histoire*(Mame, 1973), p. 156.

4)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Gallimard, 1975), p. 9. ‘결핍’이니 ‘부재’니 하는 용어들은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끌어온 용어들이다. 이 점에서 세르토의 역사서술론은 정신분석학적 역사학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문제는 다른 논문에서 다룰 계획이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정신분석학 자체가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만큼, 드러난 것 보다는 숨겨진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해온 것들을 전복, 그러나 미시전복(microsubversion)시켜서 표현한다. 세르토의 저술에 대한 독해에서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

5) Stephen Ungar, “Against Forgetting: Notes on Revision and the Writing of History,” *diacritics*, 22(1992), p.62; Philippe Carrard, *Poetics of the New History: French Historical Discourse from Braudel to Chartier*(The Johns Hopkins U.P., 1992), p. 93, p. 110.

6) Keith Windschuttle, *The Killing of History: How Literary Critics and Social Theorists are Murdering our Past*(Encounter Books, 1996), p. 33, p. 299.

적 연구서는 영어권에서 먼저 발간되었다.⁷⁾ 2002년은 세르토 연구에 신기원을 맞은 해였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그의 주요 저술들의 신판과 전기와 연구서가 발간되고, 그 전례의 독일에 이어 영국에서도 국제 심포지움이 열려 관심을 고조시켰기 때문이다.⁸⁾ 사후 20년이 가까워진 지금 세르토는 이 시대를 설명하는데 적실성을 인정받는 지성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사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세르토에게 역사학의 본질적 성격은, 현실을 비판하고 ‘타자’⁹⁾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 세르토가 이종학(heterologies)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종학의 지적 작업이 기원하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을 탐구하는 장(lieu, site)에서 주체의 특권적 지위와 고정된 정체성은 의문시된다. 그 대신 인디언, 여성, 흑인, 유태인, 문화적 소수자의 다양한 타자성을 용인하는 윤리적 고찰이야말로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¹⁰⁾ 그렇다면 세르토를 이해하는데 글쓰

-
- 7) Jeremy Ahearne, *Michel de Certeau: Interpretation and it's Other*(Polity Press, 1995); Ian Buchanan, *Michel de Certeau: Cultural Theorist*(Sage Pub., 2000). 전자가 일반적 해설서라면, 후자는 현대 프랑스 사상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전문연구서이다. 그 외에 Graham Ward (ed.), *Certeau Reader*(Blackwell, 2000)은 세르토의 주요 저작들을 발췌하여 영어로 번역한 입문서다.
- 8) 전기: François Dosse, *Michel de Certeau: le marcheur blessé*(La Découverte, 2002). 연구서: Christian Delacroix, François Dosse, Patrick Gracia et Michel Trebisch(dir.), *Michel de Certeau: Les chemins de l'histoire*(Complexe, 2002); Daniel Bogner, *Gebrochene Gegenwart: Mystik und Politik bei Michel de Certeau*(Mainz: Matthias-Grünewald-Verlag, 2002); *Revue Espaces Temps*, 80/81(2002) *Michel de Certeau: Histoire/psychanalyse mises à l'épreuve*. 국제 심포지움: 브리스톨의 Univ. of the West of England에서 2002년 9월 16일 “Michel de Certeau Now”란 주제로 개최.
- 9) 세르토는 타자라는 용어에서 선명한 내적 구분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Ahearne, *op. cit.*, p. 52은 1) 역사적 타자, 2) 고고학적 타자, 3) 환상적 타자로 타자를 분류하였다. 한편 William A. Barbieri Jr, “The Heterological Quest: Michel de Certeau’s Travel Literature and the ‘Other’ of Comparative Religious Ethic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30(2002), p. 26는 1) 신의 타자성, 2) 종족적 타자성, 3) 자기 사회 안의 타자성, 4) 자기 영혼 안의 타자성, 5) 우리 신체 안의 타자성으로 분류한다. 필자는 본고에서 주로 2)번과 3)번 그리고 4)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한다.
- 10) Michel de Certeau, *Heterologies: Discourse on the Other*, tr. by Brian Massumi(U. of Minnesota Press, 1987), p. xv, pp. 217-218. 이 책은 *Histoire et psychanalyse entre science et fiction*(Gallimard, 1987, 2002)의 영역판이다. Graham Ward(ed.), *op. cit.*, p. 12; I. W. F. Maclean “The Heterologies of Michel

가가 왜 중심 요소가 되는 가? 역사가 세르토에게 역사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바로 글쓰기를 의미한다.¹¹⁾ 글쓰기는 양극적 독단과 윤리의 중간길에서¹²⁾ 역사가가 수행하는 하나의 실천 활동이다. 그것은 과거의 타자가 남긴 흔적을 개별적으로나 혹은 집단적으로 텍스트에서 조립·제작하여, 새로운 타자성(alterités)의 공간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역사가는 다름아닌 이 ‘과거의 타자성에 해석의 타자성을 결합’하는 존재이다.

세르토에게 글쓰기의 핵심은 바로 결핍(défaut)되고 부재(absence)하는 것의 취급에 두어진다. 그 이유는 글쓰기에 표현되는 현실은 대상의 실제 현존과는 분리된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글쓰기 사업은 한 이념 형식을 보유한 특수한 전문가 집단의 조립제작과, 장소(place)¹³⁾를 생산(production)하는 공작활동(operation)이다. 이 말들은 용어적으로 마르크스의 표현과 동일하지만 용례는 좀 다르다. 역사서술에 표현된 현실은 자본의 생산을 결정하는 현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¹⁴⁾ 세르토에게 역사가가 탐구하는 대상은 과거의 현실이 잔존한 흔적이다. 그 흔적은 세르토가 수없이 반복하며 강조하는 말을 따르며, 단절과 단층과 파열과 불일치로 점철된 지극히 지형학적 비결정성을 지닌 용어로 설명된다. 설상가상 해석자인 역사가 역시 확정된 고유영토 제대로 없이 지도¹⁵⁾ 하나 달랑 들고 편력(여행, 항해, 방랑, 순력)하며 유한한 여정을 걸어가는 떠돌이 선동가이다. 역사가가 투명하고 정통한 글쓰기를 하는 존재라는 관점은 세르토에게는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된다.

세르토는 묻는다. 역사가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 그는 주

de Certeau,” *Paragraph*, 9(1987), pp. 83-87; Pierre Mayol, “Michel de Certeau, historien et la culture ordinaire,” *Esprit*, 3(2002), p. 193.

11) Philippe Carrard, “History as a Kind of Writing: Michel de Certeau and the Poetics of Historiography,”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100(2001), p. 466.

12) Michel de Certeau, *Heterologies*, p. 199.

13) 세르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소’라고 부르는 ‘공간’을 글쓰기의 영역으로 강조한다. 좀더 상세하게 말하면, 일상의 종합적 실천 영역인 공간(espace), 활동에 권위를 부여하는 제도적 영역인 장소(place), 좀 더 한정된 의미를 지닌 개인 활동의 장(場)(lieu), 그리고 국지적 위치(localisation)로 구분하여 의미를 부여한다.

14) Michel de Certeau, *Heterologies*, p. 203.

15) ‘편력’과 ‘항해’와 ‘여행’을 강조하는 세르토에게 ‘지도’는 중요한 수사학적 은유 가운데 하나로 빈번히 이용된다. Stephen Hartnett, “Michel de Certeau’s Critical Historiography and the Rhetoric of Maps,” *Philosophy and Rhetoric*, 31(1998), pp. 288-290.

체의 토대를 세운 근대 서구 지식인들의 글쓰기 전통에 도전한다. 그리고 서구인, 주류인, 지식인의 타자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필자는 바로 이 떠돌이 주변부 역사가의 타자에 대한 우울한 애정에 공감하며, 그의 역사서술론이 표명한 다원적인 '타자'들의 장소와 모습을 탐색한다. 그것은 근대 초 서구인들이 수행한 주체의 내외적 확장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서 시작한다. 그리하여 첫째는 구세계의 악령들림 사건에서 '주체 안의 타자'와 접촉한 경험을 서술하고 해석한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는 신세계의 '원주민과의 조우' 사건에서 '주체 바깥의 타자'에 관한 경험을 글쓰기한 방법에 관한 세르토의 설명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후기 구조주의자,¹⁶⁾ 원(原) 포스트 모더니스트,¹⁷⁾ 신 역사주의자,¹⁸⁾ 탈식민주의자¹⁹⁾ 등의 다면적 평가를 받는 그의 역사서술론이 과연 어떤 방법론적 전망을 구현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II. 역사의 불확실성

세르토의 역사서술론에서 초점은 근대초 유럽에서 신념과 사회적 행동의 혼합이 타자성²⁰⁾을 표시하는 담론 형식에 주어졌다. 그것은 크게 분류하면 사회인식론적, 기호론적 그리고 정신분석(프로이트)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

16) Richard Terdiman, "The Response of the Other," *diacritics*, 22(1992), pp. 7-8.

17) M. P. Holt, "'Review Article' to *The Possession at Loudu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32(2001), p. 467.

18) Claire Colebrook, "Michel de Certeau: oppositional practices and heterologies," in *New Literary Histories: New Historism and Contemporary Criticism* (Manchester U. P., 1997), pp. 112-137.

19) Ian Buchanan, "Writing the wrongs of history: de Certeau and post-colonialism," *SPAN: Journal of the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Commonwealth Literature and Language Studies*, 33(1992), pp. 39-46; Tan See Kam, "Making Space for Heterologies: de Certeau's Links with Post-Colonial Criticism," *Social Semiotics*, 61/1(1996), p. 31, p. 33.

20) 타자에 관한 논의가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학과 관련 있다는 것은 세르토의 '타자론' 이해에서 당연한 전제이다. 타자에 관한 논의의 출발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타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고 일한다."는 말이다. Certeau, *L'Étranger ou l'union dans la différence* (Desclée de Brouwer, 1969), p. 9; Claude Geffré(dir.), *Michel de Certeau ou la différence chrétienne* (Cerf, 1991), p. 13.

진다. 세르토가 가톨릭 관련 잡지에 논문을 게재하던 관행을 넘어서 일반적인 역사학에 관한 본격적 글쓰기에 나선 것은 『아날』지에 투고를 개시하고,²¹⁾ 근대 종교사를 다룬 담화 중심의 서사적 저술인²²⁾ 『루덩의 악령들립』을 간행한 1970년에 발생한 일이다. 놀랍게도 그 책의 첫머리는 “모든 측면에서 역사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상한 사건의 출현을 알린다. “이상한 일들이 정상적인 양 행행한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그들이 소용돌이치도록 만드는 오직 하나의 위기만을 요구한다. 그리고 마치 홍수에 물이 불어날 것처럼, 그들은 배수로를 막은 덮개를 들어 올리고, 우리의 천정으로 침입하고, 다음에는 우리의 마을로 침입한다.”²³⁾

루덩의 악령들립(빙의) 사건의 발단과 진행과정은 이렇다. 루이 13세 시대인 1632년 프랑스 서부 현재의 푸아투 도에 푸아티에와 조뮈라 사이에 위치한, 주민 14,000명 정도의 소도읍 루덩에 역병이 돌아 5월에서 9월 사이에 3,700여명이 죽어나갔다. 그런 뒤에 읍내에 소재한 우르술라 교단 수녀원에서, 1632-8년간에 걸쳐 수녀 20명이 집단으로 악령들린 현상이 발생하였다. 놀란 교회와, 리슐리외가 파견한 행정지사 로바르드몽(Laubardmont) 남작의 불철주야 심문 결과 야심 많은 호색가며, 교구 신부이자 수녀원 고해신부인 그랑디에(Urbain Grandier)가 악령의 원천으로 지목받고 이년 뒤인 1634년 화형에 처해졌다. 한편 예수회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쉬랭(J-J Surin) 수도사를 퇴마사로 파견하였다. 쉬랭은 혼신을 다해 마침내 마지막까지 격렬하게 저항한 수녀원장 잔느(Jeanne des Anges)의 악령까지도 굴복

21) Michel de Certeau, “Ce que Freud fait de l’histoire : À propos de «Une névrose démoniaque au XVIIe siècle»,” *Annales ESC*, t. 25(1970), pp. 654-667. 세르토는 아날 학파의 심성사에 호의적이었지만 전체사의 전망에 비판적이므로 선택적 친화성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페브르의 심성적 도구 개념에 유보적이고 퀴레의 계량사학에는 적극 반대하지만, 블로크의 종교사와 결합한 정치사에 동의한다. 그리고 브로델이 다양한 주제들을 역사학의 영역에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 77, p. 93.

22) 샤흐티에와 부케넨은 세르토가 역사학의 글쓰기는 항상 서사로만 조직됨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를 수행하고, 폴 리콥르의 성찰에 길을 닦았다고 평가한다. Roger Chartier, “L’histoire ou le savoir de l’autre,” in Luce Giard(dir.), *Michel de Certeau*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pp. 155-167; Buchanan, *Michel de Certeau* ...; p. 66.

23) Michel de Certeau, *La possession de Loudun*(Juillard, 1970 : Gallimard/Juillard, 1990), pp. 7-8.

시켰다. 그러나 심신이 극도로 지쳐버린 그는, 자신도 역시 악령이 씌었다고 주장하며 평생 동안 걷기와 글쓰기와 말하기를 거부하여 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²⁴⁾ 설상가상 이번에는 잔느가 자신의 퇴마권능과 신유의 능력을 주장하고, 악령을 이긴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 및 살르(Fr. de Sales) 성인의 이름으로, ‘악령’이 그녀의 왼손에 각인한다는 성흔 기적을 행하며 일반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전국을 순회하였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잔느 그 녀인 셈이 되고 말았다.²⁵⁾

세르토의 표현대로, ‘알면 알게 될 수록 ... 낯선 이방인으로 나타나는’²⁶⁾ 17세기 영성적 신자들의 결코 ‘필설로 다 말할 수 없는’ ‘악령들림’ 사건을 그는 미시사적으로 접근하였다. 세르토는 사건의 본질을, 첫째는 수녀들의 외면상 공적 자아에 맞서 ‘내부의 또 다른 자아’인 타자가 발현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이를 전위(déplacement)의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종교적 이성이 새로운 종류의 합리성으로 출현한 국가이성으로 대체되는 과정에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한다. 요컨대 교회의 분열이 고착화되고 새로운 외부적 타자인 절대국가의 세속적 권위가 압박을 가해오자,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 수녀들의 내부적 타자가 공개적으로 발현한 정치적 사건이란 해석이다. 지금 듣기에는 약간 진부해 보이는 이 견해는, 교회의 분열로 말미암아 기존 교회질서를 주도적으로 표현해온 공식적 제례의 실천적 의미가 점차 불분명해지는 가운데, 공적 상징을 표상하는 종교 집단들이 반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하며 제도교회로부터 급격하게 멀어지는 정치적 과정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발생 구조는 이원적 대립 형식이다. 근대 초 대략 1550년에서 1660까지 걸치는 한세기 동안 프랑스 농촌에서는 마법사가 대거 출현하여 민심을 유혹하고, 도시의 판사들과 대립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함께

24) 세르토는 쉬랭의 서간을 주석하고, 동키호테와 휠덜린을 결합한 듯한 그의 내적 망명 자로서의 삶을 존경하였다. J-J Surin, *Correspondence*, M. de Certeau (ed. & intro.) (Declée de Brower, 1966); Michel de Certeau, *La possession de Loudun*, p. 12, p. 295.

25) 이 이야기는 Aldous Huxley가 『루덩의 악마들』(*The Devils of Loudun*, 1952)이란 소설로, Kawalerowicz가 『수녀원장 잔』(*Mère Jeanne des Anges*, 1960)이란 영화로, Ken Russel이 『악마들』(*The Devils*, 1971)이란 영화로 만들었다. 그리고 Penderecki는 『루덩의 악마들』(*Les diables de Loudun*, 1969)이란 오페라도 제작하였다.

26) Michel de Certeau, *L'Absent de histoire*, p. 155.

16세기 말경 수도원을 비롯한 여러 미시집단에서 악령들림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퇴마사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였다. 그 결과 판사와 퇴마사가 사회적 동종성을 지니는 방향으로 전화하고,²⁷⁾ 악령들린자는 제3의 존재로 등장하여 이에 대항하는, 사회 관계에서 2원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제 악령들림을 배경삼아 마법의 전투가 벌어지고, 전체 사회는 마법을 중심 담론으로 삼는 집단들의 전장이 되고 말았다. 특기할 것은 도시와 농촌을 특별히 구분할 것 없이, 악령들림 소극장의 무대에서 주연배우는 주로 여성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에는 사건에 관한 기록 문서의 생산자는 지배적 남성이었고, 그들의 담론에 의해 여성담론이 왜곡되어 표현되는 일차적 관계가 작용하였다. 악령들림 현상은 역사의 타자인 여성의 지위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역사적 사건으로도 의미심장하다.²⁸⁾

그러나 역사가 세르토는 겸손하다. 자신의 해석이 남김없이 투명한 정통설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첫 장에서 강조하듯, 역사는 확실치 않으며 발생한 사건들은 참으로 기이하고 낯설다. 비록 정신분석이나 기호학과 같은 방법론을 도구로 삼아 문서에 남아 있는 흔적들의 조직화를 시도 하지만, 그것의 한계 역시 자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길 정중하게 권고한다. 세르토는 먼저 악령들림의 징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던 수녀원의 일상적 삶에 주목한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한 많은 연구자들은 흔히, 수녀들이 겪은 지루한 일상과 성적 좌절을 사건 발생의 실마리로 삼는 상투적 해석에 매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세르토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자극하는 또 다른 중심요소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소도시 루딩에서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도인 위그노가 상호갈등과 공존의 역사를 유지했던 사실과 맞물려 있다. 수녀들은 개신교도들을 악마적 이탈자로 단정하는 가톨릭 개혁 운동에서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전략을 감당하는 전위대 역할을 하였으나, 자신들의 권위와 설득력이 급격히 약화되

27) 로베르 망드루는 17세기에 지식인 문화와 민중문화, 계몽주의와 몽매주의, 과학적 관찰에 적합한 가시적 세계와 숨겨진 신비한 초자연적 비합리적 세계를 구분하였다 (Robert Mandrou, *Magistrats et sorcier en France au XVII^e siècle*, Paris: Plon, 1968, pp. 18-70). 반면 세르토는 지배집단과 피지배 집단 사이에서 두 문화가 교류한 증거를 강조하였다. Michel de Certeau, "Une mutation culturelle et religieuse: les magistrats devant les sorciers du XVII^e siècle," *Revue d'histoire de l'Église de France*, 55(1969), pp. 300-319.

28)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p. 250-251.

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었다. 분열에 저항하는 가톨릭 교회의 교의가 경직되어 갈수록, 역설적으로 교회의 공적제도인 수녀원은 점진적 해체로 나아가고 있었다.

악령들림은 이런 일반적 변화의 구조 틀에서 시작되었다. 수녀들은 자신들의 억압된 내면을 분출하는 언어로 표현할 시간과 공간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르토는 여기서 다시 한 번 검토한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피상적 분석만으로는, 원형적 본질을 실체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 세르토가 간파한 이 사건의 또 다른 본질은 첫째, 바로 현상에 대한 고유한 이름붙이기(命名化)가 절대적 위기를 맞은데 있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발생한 정신적 공황과 악령들림은, 오랫동안 사회 전반을 지탱해온 공통의 역사적 언어가 해체되는 반역사적이고 초언어적 징후의 표현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종교 개혁 이후 수녀들은 기존의 정통 교리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다. 회의와 절망에 빠진 수녀들은 그 모든 현상을 악령의 농간으로 귀속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수밖에 달리 무슨 뽀족한 도리가 없었다. 그녀들은 “정통의 충성스런 언어로는 관용할 수 없는 의심과 충동의 믿을 수 없는 경험에 의해 끌어 당겨졌다. 기존 신앙의 도식에 따르면 수녀들은 이 모든 현상들을 악마에 귀속시키는 일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 내면의 지평에 날개를 펼치고 분열 시키는 지옥의 그림자로 인식하는 수밖에 없었다.”²⁹⁾

두번째로, 세르토는 명목상으로는 종교적 요소이지만, 본질적으로 정치적 전략들이 관철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세르토가 보기에 리슐리외를 비롯한 절대왕권의 대리인들은 지방의 자율성 탈취와 개신교도 탄압을 위해, 이 사건을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이들은 절대국가야말로 모든 신민이 준수해야 할 교양과 문화적 질서의 담지자라고 자부하고, 악령들린자들은 지옥의 세력이라고 격렬하게 매도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주변부 지역 사회가 이런 사건을 계기로 종교적 우주에서 벗어나 정치적 국가의 체계로 편입되고, 사회경제적 이행의 표상인 동시에 국가의 통합적 부분으로 결합되었다. 국가정책을 표방하며, 특별한 역사적 순간에서 “그것은 일단의 종교적인 기준으로부터 정치적 기준으로, 우주적이고 천공적인 인류학으로부터 인간의 조사탐구 아래 배열된 자연적 대상들의 과학적 조직으로 이행하였다. 루덩의 악령들림은 역사

29) Michel de Certeau, *La possession de Loudun*, pp. 147-148.

의 기묘함에 관한, 그것의 변화에 의해 촉발된 반성에 대한, 과거 시대의 악마의 소행과는 다른 그러나 과거의 그들처럼 혼란스러운, 타자들의 새로운 사회적 형상들이 출현하는 순간으로부터 제기되는 의문에 개방되었다.”³⁰⁾

이런 현상을 세르토는 역사의 재채용(re-emploiement) 과정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재채용이란 과거에 주도적이었던 세계에 대한 해석체계가, 변화한 패러다임 위에서 세계 해석의 새로운 구조 틀을,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재생산하는 과정을 두고 세르토가 명명한 것이다. 그런 과정의 대표적 형식은 바로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교회의 분열 이후 종교적 계서제의 제도적인 지배의 틀이, 국가이성적 근대 국가의 형성에 작용하여 절대국가의 정치적 지배질서를 만들어낸 이중교배의 과정이다.³¹⁾ 이 ‘재채용’의 개념에서 필자는 세르토가 마르크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을 애독한 이유를 간파할 수 있다고 본다. 세르토의 유언 관리자인 기아르(Luce Giard)가 세르토의 저술 『담화의 장악』(1968)의 1994년판 소개문에서 세르토가 마르크스의 여러 저술을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읽었지만, 하필 이 저술을 그렇게나 상세하게 읽은 ‘이유를 여전히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볼 수 있다.³²⁾ 필자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의 핵심을 찌르는 수사학적 역설과 풍자와 논리적 분석에 감동받지만, 그 가운데도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제 1장 첫 단락은 바로 ‘재채용’ 개념의 실마리라고 판단한다. 『역사철학 강의』 제 3부에서 헤겔은 “세계사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말하자면 두 번 나타난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번은 희극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당통 대신에 코시디에르가, 로베스피에르 대신에 루이 블랑이, 1793-95년의 산악당 대신에 1848-51년의 산악당이, 삼촌 대신에 조카가 나타난다. 그리고 브뤼메르 18일(쿠데타)의 재판(再版)이 나온 정세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다.”³³⁾

30) Michel de Certeau, *ibid.*, p. 328.

31) Michel de Certeau, *L'Asent de histoire*, pp. 45-46, p. 140; *L'écriture de l'histoire*, p. 152, p. 165.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개념과 유사하다는 평가는 D. L. Schalk, “Review,”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2(1997), pp. 1455-1456.

32) Luce Giard, “Demain déjà se donne à naître,” in Michel de Certeau, *La prise de parole et autres écrits politique*, p. 15. 필자는 지아르가 세르토에 대한 해석에서 탁월한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녀의 견해가 무조건 정설로 대접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3) 칼 마르크스(임지현·이중훈 옮김), 『프랑스 혁명사 3부작』(소나무, 1987), p. 162.

그 외에도 세르토가 혁명력 II년 국민공회 의원 그레구아르(Abbé Grégoire, 1750-1831) 신부가 중앙집권적 국가통합을 위한 방언 근절의 언어적 십자군을 시도한 정책과, 1848년 2월 혁명 이후 1852년 경찰청에 설치되어 민중의 정치적 각성을 자극한 민중문화를 검열한 ‘행상꾼의 대중문화 검토 위원회’ 간사인 니사르(Charles Nisard)의 보고서 『민중의 서적과 서적행상용 대중문학의 역사』³⁴⁾에 주목한 원인도 이와 연관이 있다. 이 사례들은 위험하고 열등하다고 간주된 문화적 요소들을 억압하려는 정치권력의 시도에서 비롯되었지만,³⁵⁾ 결과적으로 전자는 사투리를 글쓰기로 보존하고, 후자는 민중문화의 요소들을 보존하여 새로운 문화 탐구의 토대로 작용하게 되었다. 1968년 5월 혁명 역시 마찬가지로 재채용이 구현되었다. 5월 들어 마치 1789년에 바스티유를 함락하였듯 소르본을 함락하고 혁명지지자들이 그 시대의 담화를 함락시켜 장악하였지만, 그해 6월 중순 들어 담화는 다시 안정화되고 말았다. 혁명적 사건이 안정된 질서의 구조로 바뀌고 만 것이었다.³⁶⁾ 그러나 사건이 진압되고 구조의 억제력이 강화된 것은 도리어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이 구조와 체계를 동요시키기를 부단히 모색하는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필자는 세르토가 바로 여기에 서있고, 바로 이 과정이 역사의 재채용 과정이라고 해석한다. 재채용에 대한 강조는 역사의 단선적 진보의 과정을 긍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순환의 과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비슷한 모방작들이 중요한 계기마다 출현하는 역사의 나선형적 진행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4) Charles Nisard, *Histoire des livres populaires et de la littérature de colportage*(1854).

35) Michel de Certeau, D. Julia et J. Revel, *Une politique de la langue: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s patois*(Gallimard, 1975), pp. 165-169; Certeau, Julia et Revel, “La beauté du mort” in *La Culture au pluriel*(Union Générale, 1974; Seuil, 1993), pp. 51-52.

36) Michel de Certeau, *La prise de parole et autres écrits politique*, p. 40, p. 64. 취약한 타자인 민중문화에 대한 억압이 도리어 내부적 동요를 통하여 문화진흥의 계기가 되었다는 논리는 세르토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명제 가운데 하나이다. Roland Boer, “The Resurrection Engine of Michel de Certeau,” *Paragraph*, 22(1999), pp. 199-212; Pierre Lardet, “Ambitions et violences: d’une <<politique de la langue>> à la fin du XVII^e siècle,” *Esprit*, 11(2002), pp. 116-117.

III. 타자의 발화에 관한 해석과 기록

세르토는 악령들림의 원인에 관한 분석을, 종교적 질서와 과학적 조직간의 단순한 구분을 넘어서 다차원적으로 진행한다. 일찍이 미슐레는 이 사건이 의학적 계몽주의 세력들과, 교회의 혼미한 신앙 사이의 명백한 직선적 갈등 탓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에 세르토는 도리어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였던 인물들이 표명한 사회적 불안의식의 산물로 규정한다.³⁷⁾ 그는 당시에 진행된, 악령들림에 대한 다양한 해석행위 — 의학, 신학, 철학 및 법학 — 의 반복된 실패와 망서림 또는 모호한 축진을 지적하고, 그것이 중간 경계 지대에서 흐릿하게 진행된 현상임을 신중하게 암시한다.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이런 불확실하고 역설적인 설명은 독자로서 하여금 역사가의 해석 능력에 신뢰를 유보하게 만든다.

당시의 해석자들에게로 눈을 돌려보자. 그들은 다양한 직업을 보유하고 종교, 정치 및 사회적 권위를 장악한 자들로서, 악령들린 자들을 사회질서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점에서 악령들림의 원형적 현상에 관한 서술 작업은 당대 지적 공동체의 조건에서 ‘이름붙이기’를 통해서 생산된다. “악령들린 자는 항상 자신만의 어딘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선언하고, 결정되지 않은 토대로부터 말한다. … 한편 이름붙이는 명명자나 지시자의 노동으로 대응하는 퇴마사나 의사들은 이런 전통적 사회에서 악령들림의 특징을 표현한다. 악령들린 경우에 치료는 … 본질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몸짓과 비명의 혼란과 결합된 불확실한 담화로서 선언하는 것에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시작한다.” 해석자는 악령들린 자의 징후를, 주체가 심히 불안정한 발화와 몸짓으로 온갖 악마의 이름을 마구 열거하는 급변과, 그것이 사회질서의 속성에 감염될 위험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이들 주체의 고유한 속성은 항상 타자나 언어적 타자 또는 자신의 고유명사에 의해 부식되어 표현된다. 이 과정에서 수녀들의 고백이 흥미롭다. 수녀들은 처음엔 자신이 “타자에 의해 말해진다”고 표현하였지만, 점차 “타자가 나와 함께 한다”³⁸⁾고 말을 바꾼다. 이 때의 타자는 당대의 계서제적 중심의 시각에서 보면 후진성이나 저항으로 규정

37) Michel de Certeau, *op. cit.*, p.174.

38) Michel de Certeau, *ibid.*, pp. 251-252.

되는 타자라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³⁹⁾ 세르토는 이러한 왜곡현상, 주체의 속성이 타자에 의해 부식되는 현상, 고유성의 비고유성 현상이 불가피했다고 평가한다. 이들 분열된 주체에 대한 해석자의 분류체계는 갈등과 유동성을 가져오는 상호침투적 언어 공간을 표현한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명칭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부과는 의사나 정치가와 같은 사회적 권력 집단의 ‘이름붙이기’가 승리했음을 나타낸다. “루덩에서 … 고유한 명칭들의 여러 사건들이 존재한다. 악마론적, 의학적 및 정치적 사건들이다. … 악령들림은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계층화되고 비공식적인 고유명사적 도표들의 다원성에 바탕을 두고 작용한다. 악령들린 여성의 담화 능력은 오직 악령연구자들이 부과하는 고유명사가 그녀에게 제공하는 가능성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의사나 정치가들의 가장 강력한 당파의 명단이 승리할 것이다.”⁴⁰⁾ 이것은 역사적 기록의 성격을 설명한다. 악령들림에 관한 현존 기록들은 주로 위에서 말한 이름붙이기의 결과물들이다. 그런 기록을 세르토는 왜곡변화(alteration)된 기록으로 규정한다. 모든 역사적 기록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타자’의 흔적들이 조작된 왜곡변화된 기록이다. 이 기록은 ‘타자’의 상징적 환경을 ‘공작활동’한 해석작업의 산물이다. 그 작업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역사에서 모든 것은 따로 분리, 결합하고 다른 방식으로 분류한 어떤 대상으로 ‘기록들’을 변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시작한다. … 현실에서 자료들은 그것의 장소와 지위를 동시에 변화하면서, 이 대상들을 복사하고, 베껴쓰거나 사진식자함으로써 그런 기록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⁴¹⁾ 이것은 원사료에 바탕둔 기록의 문제를 설명한다. 원사료들은 역사가가 자료 사용법에 따라 그것을 절단하고 결합하는 일치된 행동을 통하여 창조된다. 그것에 바탕둔 기록의 생산은 당대의 사용법의 경계선을 넘어, 그것을 재채용의 구체적 형식에 예측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록 과정은 기교적 공작활동을 요구한다. 기록은 해석자 주체가 언어를 전유한 권위적 지식의 산물이고, 역사가는 해석자의 텍스트 조립 형식 — 재결합, 재해석, 전환과 왜곡을 포함한 — 에 주목해야 한다.

수녀들은 초자연적 우주의 가시적 개입을 요구하는 동시에 다른 외부적 힘

39) Michel de Certeau, *ibid.*, p. 127.

40) Michel de Certeau, *ibid.*, p. 269.

41) Michel de Certeau, *ibid.*, p. 84. ‘alteration’은 영혼의 괴로움, 신체의 혼란 및 언어의 분열을 내포한 표현이기도 하다.

의 개입을 배제한다. 반면 판사나 퇴마사나 의사들은 그들 영역의 탈영토화를 막으려 나선다. 그 과정은 주로 수녀들의 발화를 듣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수녀들의 광기에 이룸붙이기를 위한 해석자들의 투쟁은 악령들린 타자의 표현이 기록되는 텍스트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⁴²⁾ 해석자에 관한 논의에서 세르토는 악마론자들이 수행하는 언어적 사업의 위치를, 이중적이며 상호결정적인 해석을 주도하고 명칭의 힘을 결정하는 한 ‘권력에의 의지’의 행사라는 큰 구조 틀 안에 부여한다. 그 의지의 행사는 수녀들의 발화를 기교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녀들의 발화는 항상 그녀들 자신은 소외된 분류법으로 ‘인용’되어 통합정리 되었다. 누구도 악령들린자의 고유한 목소리에 접근할 수 없다. 악령들린자의 담화에 관한 온갖 보고는 제도적 지식과 권력의 대표자들이 질문한 결과이다. 텍스트에 기술된 언어체계들은 강한 구어성을 지닌 파편화된 인용의 형식이다. 해석자들은 수녀들의 언어를 자의적으로 발췌하여 기록하였다. 이 전략적 ‘인용’들은 무지와 악령의 복합체를 조작해냈다. 인용은 양면가치를 지닌 해석적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러다보니 이런 인용들은 사건의 실체를 증명하는 토대로는 변덕스럽기 짝이 없다. 그것은 “양면가치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번역자나 주석가의 지식을 변경시키는 기묘한 위험을 유지할 것이다. ‘인용’은 실수의 위협과 긴장을 담론으로 표현한다. 담론에 의해 지배된 — 또는 악령들린 — 타자성은 환상적 유령 — 혹은 악령들린자로서 귀환하는 잠복성의 권력을 유지한다.”⁴³⁾

우리는 악령과 허위로 충만한 정신 상태의 직접증거로 인용되는, 수녀들의 ‘불경’과 ‘불손’함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사 로바르드몽에게 수녀들이 “바로 당신이 악령들렸다. 지금까지 당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발각되었다.”⁴⁴⁾고 할 때 더욱 그렇다. 이 말은 얼핏 보면 진실을 폭로하는 행위인듯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완전히 진실인 것은 아니다. 세르토가 주목하는 것은 다만 그런 담화의 인용에 의한 주변적 전도의 가능성, 즉 정반대 방식의 이해가능성을 제기한다. 인용은 ‘텍스트 안에서 파편화, 재채용 및 짜집기한 것’, 즉 ‘왜곡변경’된 것이다. 악령들린자의 목소리를 완전복구 가능한 ‘인용’은 없다. 그러나 인용 작업은 어떤 신비적

42) Michel de Certeau, *ibid.*, p. 252.

43) Michel de Certeau, *ibid.*, p. 256.

44) Michel de Certeau, *La possession de Loudun*, p. 155.

재창조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한다. 그것은 마치 백수건달로 남은 운동권 출신의 백일몽이나, “X-파일”에서 비밀 권력이 파견한 감시자처럼 전율할 만한 실마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악령들림의 주체와 경로는 결코 알수 없다. “악령들림은 ‘진정한’ 역사적 설명을 수행하지 않는다”⁴⁵⁾ 이런 전제 위에서 세르토가 추적하는 것은 오직 악령들린 담화의 이행과 파열의 흔적이다. 이 담화의 본성은 “담론에 의해 금지되고 담론 안에서 귀환하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담론의 변경을 통해서 불쑥 끼어 넣는 것이다.”⁴⁶⁾ 이는 언어적 주체들이 언어를 ‘전유’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담화의 장악』⁴⁷⁾에서도 한 ‘이론적 표시’로서 제시된바 있다. 악령들린 담화 분석에서 세르토는 일단의 해석적 체계들에 관한 개인적 발화의 관계와, 악령들린자들이 이들 체계 안에서 입장을 표현하는 표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해석의 체계화는, 해석대상이 무단히 감행하는 탈주의 시도 탓에 팽팽한 긴장과 직면한다. 해석가들이 ‘네가 누구냐?’고 자백을 요구할 때,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타자는 “나는 누가 말하는지 알지 못 한다”고 응수하더니, “나는 누가 나의 타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로 변화시켜 응답한다. 그러더니 점차 거창하게 리바이어던이니 또는 베헤모스니 하는 등의 타자성을 인용한다. 이런 인용들은 파편화되고 재채용되고 수정된 것이다. 이 밖에도 그 타자들은 ‘개좃’이니, ‘옛먹어라’는 식의 욕설이 잠재된 변칙적 명칭으로 이중놀이를 한다. 말하는 주체인 수녀들은 한 언어체계 안에서 자신을 공격으로 전유할 수 있고, 입장표명이 가능한 방식들을 찾는다.⁴⁸⁾

이들의 담론은 억압된 담론이다. 나는 타자 X라고 할 때 그녀들은 심지어 ‘타자-유일신’ 조차도 가정 한다. 그래 놓고도 그것을 해석할 책임은 전적으로 타자에게 맡겨 버린다. 그러나 수녀들의 담론은 곧 한계와 직면한다. 신성한 전유는 의심받기에 이르고, 신의 뜻인 코스모스를 독해할 가능성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게다가 그들의 담론은 지식인의 담론과는 달리 구조적 안정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독되어야 한다. 해독하는 자가 사회적 우월자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퇴마사들은 수녀들의

45) Michel de Certeau, *ibid.*, p. 327.

46)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 254.

47) Michel de Certeau, *La prise de parole et autres écrits politique*, p. 40.

48)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 255, p. 267 ; Ahearme, *op. cit.*, p. 86.

말과 행동을 규정된 사회언어적 질서체계에 포섭하여 해독하려고 온 힘을 다한다. 고유명사의 지형학에서 타자를 결정하고자, 해석가들은 온갖 수단을 다해 악령들린 주체의 고정화를 추구한다. 세르토의 해석 역시 그런 측면이 있다. 세르토의 해석 역시 하나의 반해석일 수도 있다.

악령들린 수녀들의 타자는 걸핏하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다. 그녀들은 한 사회적·언어적 질서체계와, 신체와 욕망의 침묵에서 탈주하여 떠도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들의 담론은 부단히 자신의 장소에서 벗어나 이동하며 혼란을 창조하므로, 안정된 장소를 지닌 고유명사는 없다. 수녀들은 해석자들의 분류체계를 지속적으로 횡단하고 걸핏하면 걸을 거슬러 오른다. 악령들린 사건에 유일하고 심원한 진실은 없다. 남은 것은 악령들린 자들이 남긴 험오스런 목소리에 관한 지식인 해석자의 표시와 왜곡뿐이다. 전통적 해석학이 불변하고 안정된 발화자를 가정하고, 비밀언어로서 의사소통하는 신을 독해하는 것과는 달리, 악령들린 텍스트에서 주체는 사라진다. 물러난다.⁴⁹⁾ 해석 작업은 텍스트를 편력하는 여행가의 작업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도 좋다. 원본 텍스트는 없다. “오직 ‘개정되고 수정된’ 역사서 외에 역사란 없다.”⁵⁰⁾ 모든 고유명사 역시 항상 말소·변경·경멸된다. 그들의 타자는 아스모테, 아만, 이스카론, 발람이다. 신분증명은 다원적이고 ‘나’는 무한히 순환한다. 그리고 물러난다. “내가 베헤모스다. 내가 개죽이다. 나는 내 이름을 잊었다.” 이 ‘나’는 안정된 담론의 기반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악령들린 “악마론적 담론의 변경을 생산한다.”⁵¹⁾ 수녀들이 ‘나는 X’라고 하는 순간 그녀들은 더 이상 X가 아니다. 심지어 성적 비결정성까지 표현하기도 한다. 수녀들의 위치는 어디인가? 어디까지가 X인가? 해석자들의 분류학적 작업의 효력이 소멸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악령들린 수녀들은 자신의 고유 담론이 없는 존재다. 다만 악마론적 형상화에 부합하도록 미친 말(glossolalie)만 지꺼리는 존재로 고안되었다. 그것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서 공인한 기호와 언어만 사용하며 자신의 질병에 관한 의문과 지식을 전달 가능한 것과 같다.⁵²⁾ 그 결과 수녀들은 해석자에게 “그

49)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p. 261-263, p. 271.

50) Michel de Certeau, *La fable mystique*, vol. 1: *XVI^e-XVII^e siècle*(Gallimard, 1982), p. 321.

51)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p. 262-265.

52) Michel de Certeau, “Utopies vocales : Glossolalies,” *Traverse*, 20(1980), pp. 26-

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숨긴다. 타자가 그녀들에게 제공한 설명 덕분에 도파한다.”⁵³⁾ 수녀들이 주체를 상실하고 악마론적 전위를 초래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공허한 기호와 언어다. 왜 그것이 공허한가? 그녀들이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어적 계약의 규칙들로부터 자꾸 벗어나, 안정된 담론적 ‘장소’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탓이다. 이제 해석자와 수녀들은, 자기확신에 찬 권력자와, 다양한 언어를 산출하는 신민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세르토의 관심은 해석자들의 지배적 분류체계가 해석의 기만적 안정성을 획득하고, (창조적) 왜곡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드러내는데 있다.

악령들림에 관한 텍스트는 독자와의 관계에서 이중성을 내포한다. 독자에게 자기 성찰력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내부의 요동치는 위험한 균열에 자기도 모르게 감염될 가능성이 공존한다.⁵⁴⁾ 그들의 텍스트는 ‘혼란스런 친숙성’의 전망에로 밀고 들어와서, 함축적으로 그것 본래의 ‘상처’와 당대의 해석적 실천이 조직하는 충동을 드러낸다.⁵⁵⁾ 그 과정에서 역사는 일그러져 보이는 거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수녀들은 타자의 말만 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왜곡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판사, 의사, 퇴마사와 같은 지식인이 심문을 주도하지만 그들 자신도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함께 유동하는 존재이고 분석의 대상이다. 게다가 입회서기는 수녀들이 마치 이 악령들림 소극장의 규칙에 다소곳이 순종한 듯이 기록한다. 세르토는 그런 ‘가을동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록의 본성에 관한 세르토의 판단과 관련이 있다. 심문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수녀들의 말은, 이중으로 의미를 상실할 위험에 처해진다. 물론 수녀원장 잔느처럼, 악령들린 수녀들도 악령들린 언어와 정상 언어가 연속하여 중첩적으로 교차하는 기록을 남긴다. 그러나 악령들린 자는 말할 수는 있지만,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진다. 근본적으로 기록은 지식 담론의 기록이고, 기록에는 단절과 왜곡이 내포되어 있고 확실한 준거점은 없다. 그러면 이 왜곡을 밝혀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야심을 가진 해석자에게 세르토는 경고한다. 그들 역시 악령들림

37. tr. by Daniel Rosenberg : “Vocal Utopias : Glossolalias,” *Representation*, 56 (1996), pp. 29-47.

53)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 256, p. 272.

54) Michel de Certeau, *ibid.*, p. 257.

55) Michel de Certeau, *Heterologies*, p. 179.

사건에서 지식인들이 범한 복합적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IV. 타자성(alterité)의 생산

위의 장에서 결론은 세르토의 역사인식론에 접근할 길을 열어준다. 세르토에게 역사적 잔존물은 과거의 실체가 아니다.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인지 구조와 의미 체계를 따라서 미리 선택하고 분산 및 결집시켜 형상을 만드는 현재주의적 작업의 생산물이다. 그러나 이 해석 작업은 결코 순조롭게 수행되지 않는다. 안팎의 많은 방해물로 말미암아 작업은 자주 한계에 봉착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해석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르토가 현재주의 입장만 고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르토의 도발적 수사학에 근거하여 그의 역사인식론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역사연구는 ‘집단적 조립제작에 바탕 둔 특수한 형식의 복합체’이고, 한 ‘장소’ 즉 역사서술 사업이 행해지는 ‘공장’에서의 ‘생산물’⁵⁶⁾이다. 해석활동은 또한 공작활동이다. 그 이유는 해석자인 역사가가 ‘망각의 체로 거르고’ 남은 타자의 흔적들을 단순히 수동적으로만 흡수하지 않고, 그들을 재분배하는 능동적 활동의 결과 타자성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렇게 보면 세르토는 인식 주체인 역사가의 능동적 선택 활동을 긍정하되 인식 주체와 자료의 한계도 역시 인정하는 객관적 현재주의의 입장이라고 평가한다.

다시 역사서술론으로 돌아가자. 세르토는 역사서술을 주체와 객체 사이의 적대관계나 충족의 조건에서 접근하지 않는다.⁵⁷⁾ 위에서 설명한 『루덩의 악령들립』은 주체의 내부적 타자를 발견하고, 그 타자와 주체의 상호불명료성을 지적하며 해석적 준거의 불확실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16세기에 브라질 방문기를 쓴 장 드 레리의 종족지적 저술과 몽테뉴의 시론 「식인종에 관하여」(1578-80)에 대한 그의 설명은, 서구인들이 신세계에서 ‘외부적 타자’를 발견하고 그 심상을 텍스트로 재생산하는 순환적 과정에 관한 기호론적 해석이다.⁵⁸⁾ 세르

56)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 63, p. 73.

57) Michel de Certeau, *ibid.*, p. 18; T. Wandel, "Michel de Certeau's Place in History," *Rethinking History*, 4(2000), pp. 64-66.

58) Michel de Montaigne, "Des cannibales," in *Les Essais*, Livre I ch. x x x i (Quadrige, 1992), pp. 202-214; Michel de Certeau, *Heterologies*, pp. 68-69.

토에 의하면 종족지는 네가지 기본 성격을 지닌다.⁵⁹⁾ 글쓰기에서 역사학의 속성이 사회적 삶에 관한 의식적 표현과 주로 관련된다면, 종족지는 무의식적 조건과 관련된다는 차이가 있다. 구어성과 무의식을 중심으로 함축된 이 차이는, 세르토의 말을 빌리면, 과학적 활동의 대상인 인간과 사물의 폭과 넓이를 재단하며 역사를 일으켜 세운다. 구어적 언어는, 비결정적이고 편력하는 글쓰기 즉 서사로 표현된다. “글쓰기의 활동에 미리 제공한 대양과 대양의 공간에 대해, 편력하는 항해자들은 스스로 고안하고, 그 흔적들은 역사를 일으켜 세운다.”⁶⁰⁾ 이렇게 성립된 서구의 근대사는 서구인의 활동 기록과 상동적이다. 그들은 자신의 글쓰기하는 ‘의식’을 신뢰하고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텍스트는 타자의 장소이면서 차이의 공간이 되어 권력행위를 수행하는 장이 되었다. 세르토의 역사서술론에서 타자는 텍스트 바깥에 있지 않다.⁶¹⁾

종족지는 서구가 과학적 지식 개념과 근대성의 체계를 확립하면서 사용한 범주이다. 17-8세기 유럽 사회는, 이전 세기부터 시작된 신세계의 발견과 종교개혁, 절대국가와 과학적 이성의 탄생과 같은 사건의 출현에서 기인하는 일련의 전위 현상을 발생시켰고 그 결과 사회적 분열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그와 함께 역사적 형상화도 새로운 표현형식이 출현하여 말하기와 글쓰기에 과거와 다른 기능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차이화’가 인식론 및 사회적 적합성을 획득하자, 그것은 지식인들이 중세 기독교, 특히 신세계의 ‘야만인’들에 대한 서술적 지평을 여는데 기여하였다. 종족지는 여행과 도표의 역사이며, 낯선 환경에 직면한 한 문화가 경험한 왜곡변화된 기록의 생산을 상징한다. 종족지 텍스트들은 스스로 자만하는 ‘꿈의 과학’을 건설하고 타자에 대한 담론

59) 그것은 (1) 구어성(oralité): 야만, 원시 또는 전통 사회에 고유한 의사소통 형식, (2) 공간성(spatialité): 역사없는 체제에 공식적 도표 제공, (3) 타자성(l'altérité): 문화적 단절을 제시하는 차이, (4) 무의식(l'inconscience): 낯설고 다른데서 주어지는 지식이란 의미에서 비추어보는 집단적 현상의 지위 등을 말한다. 그리하여 타자의 공간에서 알지 못하는 토착민들의 말의 규칙을 가정하면서 구어성의 법칙을 도표화한다. 여기에는 네 개의 상호 반대되는 개념들이 작용한다. (1) 글쓰기(l'écriture), (2) 시간성(la temporalité), (3) 자기정체성(l'identité), (4) 의식(la conscience) 등이 바로 그것이다.

60)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 216.

61) Michel de Certeau, *Heterologies* ..., pp. 81-82. 이와 같은 텍스트 중심주의는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데리다의 전망과 같다. 이 점에서 지성사 분야의 데리다주의자로서 ‘역사의 텍스트화’를 강조한 라카프라(Dominick LaCapra)와 유사한 점도 있다. 덧붙여서, 글쓰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화이트(Hayden White)와 유사성이 있지만 세르토는 이들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을 형성한다. 종족지 담론은 그 성격에서 “서구의 노동에 의해 점유된 장의 바깥으로 구어성을 추방하면서, 그리고 한 이국적 대상인 말을 변화 왜곡하면서 표명한 것”이다.⁶²⁾ 낯선 원주민을 야만시한 종족지 담론은, 서구인들이 팽창주의적 체계화를 지향한 글쓰기의 표본이고, 이는 세르토가 거부하고 비판하는 글쓰기의 대표적 양상이다.⁶³⁾

1556-8년 사이에 스위스인 레리가 리우 데 자네이루 만에서 겪은 생존경험담에 관한 반성적 저술이 바로 왜곡변경된 기록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본래 리우 만의 한 작은 섬에 있는 켈빈파의 은신처에 가담하기 위하여 유럽을 떠났던 그는, 지도자 빌가농(Nicholas de Villegagnon) 제독의 교의적 비밀관성과 표리부동함 탓에 은신처를 떠나도록 강요받았다. 그는 유럽의 배가 구출할때까지 우연히 합류한 해변의 토착민 투피남부(Tupinambou) 족과 석달을 함께 보냈다. 프랑스로 돌아와 20년의 침묵을 지킨 뒤에야, 레리는 자신의 귀환이 가능하도록 보살펴준 토착민들에 관해 저술하였다. 이 저술은 그 후 4세기간 유토피아 모험항해담의 견본으로, 현대에는 사회인류학자의 성무일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귀중한 취급을 받았다.⁶⁴⁾ 동시에 이 텍스트는 토착민의 문화를 왜곡시키고 그들의 타자성을 유럽인의 지식에 동화시키는 관찰작업의 결과물로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결과 이 텍스트는 타자에 관한 성찰과 자기로의 귀환을 통해서, 타자에 대한 해석과 왜곡간의 상호작용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내부적 길항과 긴장을 드러낸다. 그것이 길항과 긴장인 이유는, 문자 없는 이 종족에 관해 레리가 시대착오적이고, 심지어 예언적인 서술을 서슴지 않은 때문이다. 참으로 놀라움에 가득찬 구세계인 레리의 응시

62)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 218.

63) Michel de Certeau, “Travel Literature to Brazil,” *Representations*, 33(1991), pp. 222-223. Luce Giard, “Epilogue: M. de Certeau's Heterology and the New World,” *Representations*, 33(1991), p. 217. 세르토가 예수회원이 된 이유는 중국에 가려는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비록 그 꿈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16세기 말-17세기 초 중국선교에서 예수회원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지녔던 문화적 상대주의와 종교적 관용의 정신은 세르토에게도 소중한 지적 유산이라고 여겨진다.

64) Claude Lévi-Strauss, *Tristes tropiques*(Plon, 1955). 레비스트로스가 남미의 남비크와라(Nambikwara)족을 연구한 것과 비교한 논문은, Frank Lestringant, “Lecture croisées de Jean de Léry: à propos du «bréviaire de l'ethnologue»,” in Ch. Delacroix, Fr. Dosse, P. Garcia et M. Trebitsch (dir.), *Michel de Certeau: Les chemins d'histoire*(Complexe, 2002), pp. 57-63.

가 신세계의 ‘야만을 효과적으로 낮설게 한’ 표현들은 대양을 건너 유럽문화에서도 유통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세계의 타자성을 친숙한 구세계의 공간으로 소개하는 이중학의 건설에 기여 하였다.

레리가 20년 전에 겪었던 가장 결정적 경험은 타자의 목소리에 매혹된 순간이다. 어느 날 레리는 토착민들의 축제를 목격하는 황홀한 순간을 맞는다. 야만의 노래 소리는 마치 잃어버린 순간처럼, 부재하는 보석처럼 텍스트 바깥의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았다. 레리는 해석적 실천을 통해서 이들의 노래에 대하여 한 의미를 생산한다. “그런 즐거움은 내가 그런 다수의 아름답게 측정되는 조화들—특히 발라드의 운율과 후렴, 그들 모두가 각 대구(對句)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계속하여 에우, 에우아우레, 에우라, 에우라우레, 에우라, 우에라고 노래 불렀다. 나는 완전히 매혹되었을 뿐 아니라, 언제나 내가 기억을 되살릴 때 마다 내 마음은 떨리고 마치 그들의 음악이 내 귀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⁶⁵⁾ 참으로 감동적인 이 서술에 대하여, 그러나 세르토는 단호하고도 매몰차게, 이 노래들은 본래부터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세르토 식으로 평가하면 이렇다. 레리는 ‘의미를 생산하는 시간의 연대기적 순간의 형성을 정지 시키고, 역사의 정통적인 전개를 단절시켰다’. 그리고 “의미의 부재는 시간의 갈라진 틈새를 열었다. 여기서 노래는 에우, 에우아우레, 또는 뒤에는 레레 또는 트랄라하는 목소리가 진행되고 에, 우아, 우아라고 노래 부른다.” 그러나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서 “보존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⁶⁶⁾ 세르토는 왜 이렇게 냉정하게 레리의 감동적인 서술을 일축하고 마는 것인가?

레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레리는 자신이 경험한 이해 불가능한 사건과 사물을 번역하기 위해 중재자로서 해석학적 표현수단에 호소하였다. 원주민의 발라드를 이용 가능한 효과적 생산물로 변환시키기 위해, 그는 이 노래들이 최초의 홍수에 관한, 성서에 가장 근접한 이야기란 결론을 도출하였다.⁶⁷⁾ 투피족이 춤추던 먼 남미해안에서 서구로 돌아와 글쓰기를 시작한 항

65) Jean de Léry, *Histoire d'un voyage fait en la terre du Brésil*(1578) *History of voyage to the land of Brazil otherwise called America*, tr. by Janet Whatley (Berkeley: U. of California Press, 1992), pp.142-144;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 221.

66) Michel de Certeau, *ibid.*, p. 222.

67) Jean de Léry, *op. cit.*, p. 144.

해자 레리는 이제 지식 생산자인 주석가로 변신하였다. 한마디로 원주민의 발라드에서 기독교 세계와 및 프랑스어 텍스트로 '귀환'한 셈이다. 원주민 타자의 목소리에 전율하며 완전히 매혹된 레리의 해석작업은, 나름대로는 '찢어졌던 역사적 시간의 술기를 다시 꿰메고 한 역사를 생성'하려던 시도였다. 그러나 그 역사는 동시에 정복자로서 서구적 가치를 원주민의 삶에 주입하며, 그들의 가치와 비밀을 박탈하는 식민주의적 팽창의 계기를 감추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세르토가 강조하는, 글쓰기에서 경전기록(scripturaire) 재생산의 사례이다. 경전기록이란 다름아닌 서구의 종교 및 정치적 권력과 결합한 글쓰기를 말한다. 한 번 경전기록의 원형이 성립되면, 그 기록은 근대 서구에서 행동의 중심을 전위함 없이, 세상 끝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반복되고 확산시키며 팽창주의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서구의 팽창주의는 원주민의 과거는 보존하되 현재의 공간을 정복하는, 종교와 역사 및 정통의 재생산 놀이로 진행되었다. 글쓰기 생산물을 무한히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경전기록의 제국을 형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인쇄술의 발달이었다.⁶⁸⁾ 이런 전제 위에서 우리는 레리에 대한 세르토의 비판을 이해할 수 있다. 세르토는 레리가 준 명료한 목소리를 환상적으로 상기시킨, (이해할 수 없는) 의미의 질서와 (황홀한) 쾌락의 질서에 관한 해석은, 무의미한 일련의 해석적 조립활동의 술책일 뿐이라고 마구 폭로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번역자와 해석자 간의 분열구조로 인해 구성된 것이고, 서구인의 해석학적 도구가 해석학적 통제력으로 전환한데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⁶⁹⁾ 그러나 세르토가 레리의 글쓰기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나름대로 긍정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든다면 “해설의 분리를 가정하는 구조와 그것을 극복하는 공작활동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의미의 효과들을 창조하는 역할”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⁷⁰⁾ 그 결과 투피족이 낭송한 이야기는 우화가 된다고 성격을 규정한다.

왜 그것이 우화란 말인가? 그 이유는 공간을 왜곡변화시키고 시간을 자본화한 이와 같은 글쓰기가 기원에 관한 의미체계를 새로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요컨대 레리가 그 자체가 진실의 체계인 기원에 관한 원주민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전달하긴 하되, 그들의 말을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뒤집어서 발견

68) Michel de Certeau, *op. cit.*, p.224.

69) Ahearne, *op. cit.*, pp.69-70.

70) Michel de Certeau, *op. cit.*, p.227.

하기에 그렇다. 예를 들면, 투피족의 대홍수 전설이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 구조된 그들 조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상사람이 익사했다”는 이야기라고 소개한 후, 레리는 “모든 종류의 글쓰기에서 박탈된 그들은 사물을 순수성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시인들 처럼 그들은 나무 꼭대기로 피신한 그들 조상에 관한 이런 우화를 부가 시켰다”⁷¹⁾고 분석한다. 이런 레리를 두고 세르토는 “경전기록적 표준 덕분에 사물에 부가된 구어성을 측정하고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을 정확히 알았던,” 인물이면서, 동시에 현존하는 목소리보다 문자체계의 텍스트성을 선호한 선한 칼빈주의 역사가라고 치켜올려서 평가한다. 그 다음에 세르토는 단호하게, 레리가 말한 것도 역시 우화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레리는 “관습적인 말로 진실을 거짓으로 전환시켰고 근본적으로 그것은 (말하기에서 나온) 우화다. 우화는 일종의 표류, 순수한 원시적 법률과의 관계에서 한 탄원, 기분전환, 이교 그리고 시”⁷²⁾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경전기록의 경제학(economie scripturaire)’⁷³⁾의 관점에서 보면 레리의 말도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기 어려운 비생산적 우화에 불과하게 되었다. 글쓰기가 새로운 준봉주의를 재생산하고 자본화의 새로운 전략기능으로서 재채용되어, 레리의 이야기는 이제 원형적 우화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란 것이다.

레리의 글쓰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그것이 ‘귀환’ 작업의 산물이란 점이다. 신세계의 타자들을 정복과 개종, 왜곡과 전위시켜 서구적 동일성으로 귀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구세계와 신세계의 대양적인 구조적 단절 상태를 봉합하려 시도하였다. 이것은 낯선 자연인 야만의 저곳에서 인간적 시민사회인 제네바 이곳으로, 타자의 외재성에서 자기의 내재성으로 귀환이다. 이 귀환의 결과 자연, 미학 및 종교성을 부과하는 정체성이 동일하게 반복 재생산된다. 이것을 우리는 ‘타자에 대한 해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차라리 ‘주해서’로서 ‘종족지’의 성립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본래 ‘타자에 대한 해석학’은

71) Jean de Léry, *op. cit.*, p. 144; Michel de Certeau, *ibid.*, p. 225.

72) Michel de Certeau, *ibid.*, p. 226.

73) ‘경전기록적 경제학’이란 말은, 근대의 글쓰기 개념이 고대의 글쓰기의 잔재적인 구조를 지님을 말한다. 특히 사회 엘리트들이 역사를 설명하는 능력이 성서의 힘에 대한 신념에서 파생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경제학이란 넓은 의미에서 한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물질적 및 지적 자원들을 조직, 내부적 구성, 운영 및 기능을 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Ahearn, *op. cit.*, p. 53, pp. 57-58.

언어적 번역과 번역 대상의 폭과 넓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형식으로 고안된다. 구세계와 신세계 사이의 가상적 분리선은 레리에서 보듯 번역행위가 수행되는 경계선이다. 이 번역 과정의 본질은 한편으로는 의미와 유용성을 제공하는 정상적 독해의 과정이고, 다른 한편으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우화가 되는 과정이다. 이 종족지에서 ‘번역의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분석을 명령한다. 거기서 동식물들은 결국 외양에 따라 혹은 식용 가능한 존재인가 하는 변수에 의해 분류된다. 이렇게 레리의 서술은 사건들이 시간의 조건에서 만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기억 활동이나 주체가 경험한 연대기로 구성되고, 서술대상은 지리적 행로나 주체의 공간에서 타자로 이해되는 과정이다. 이는 결국 주체의 활동을 설명하고 인간의지의 생산물을 분석하는 과학적 ‘역사’(Histoire)의 성립과정이기도 하다.⁷⁴⁾

이 역사에서 흥미로운 일은, 근대적 시간과 이성의 제조자이며 거기에는 기독교도이기도 한 레리가 쾌락의 대상인 신체로서 ‘야만’을 생산해 냈다는 사실이다.⁷⁵⁾ 그는 투피족의 세계에서 여가와 즐거움, 눈과 귀가 황홀한 축제를 통해서 타자의 신체를 성애화한 낙원을 묘사하고 인간의 제국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실제의 사실과는 당연히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오류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타자성에 관한 경험이 지적이해성의 생산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잔재를 남기는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이 잔재는 도리어 한 죽음의 재와 같고, 이 활동의 결과 의도하지 않은 성공을 통하여 재생산하는 쓰레기이다. 이런 건설사고의 쓰레기 — 죽음의 재와 그것의 억압 — 는 궁극적으로 타자가 될 것이다.”⁷⁶⁾ 경험의 잔재가 출현하는 이러한 ‘전위’는 원주민 사회를 문명사회와 대비하고 축제의 극장에서 성애화하고 미학화 한다. 긴장과 위협을 무릅쓰고 레리는 담장을 둘러친 공간에 접근하여 작은 수문을 통하여 원주민들의 야단법석(sabbat)과 음주광란, 거기에 다 온갖 준 — 성적인 교성과 알아듣기 어려운 단절적인 목소리를 들었다.⁷⁷⁾

74) Michel de Certeau, *op. cit.*, pp. 230-236.

75) Frank Lestringant, “Lecture croisées de Jean de Léry : à propos du <<bréviaire de l’ethnologue>>,” in Ch. Delacroix, Fr. Dosse, P. Garcia et M. Trebitsch(dir.), *Michel de Certeau : Les chemins d’histoire*, pp. 64-71.

76) Michel de Certeau, *ibid.*, pp. 237-238.

77) Jean de Léry, *op. cit.*, p. 141 ; Michel de Certeau, *ibid.*, pp. 239-241.

신체와 언어에 관한 이 관음적 서술은 ‘법률에 대한 욕망의 전복성’⁷⁸⁾을 극도로 자극한다.

타자인 원주민에 대한 레리의 묘사는 전체적으로 미학적인 극장을 형성한다. 원주민에 대한 종족지에서 가장 큰 강박 관념을 제공하는 기록은 다름아닌 식인습관과 나체여인에 대한 묘사이다. 그것은 갑주를 입고 큰 낫을 든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해먹 위에 벌거벗고 앉아있는,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인디언 여성 앞에 서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역사학에 관한 글쓰기』의 권두화에 잘 표현된다. 타자의 문제를 통하여 주관성의 문제를 역사화하는, 근대 서구의 텍스트적 주관성의 계보학에서 최초의 장면⁷⁹⁾이라고 설명되는 이 묘사는 뒤집어서 보면 서구인의 식민지 정복과 쾌락 충족의 욕망이 잠복된 무의식을 표현한다. 특히 당시 서구인들이 그렇게도 집착하였던 식인여인에 대한 무의식적 환상은, 서구인들이 근대 초 유럽의 역사에서 집착한 마녀 환상을 반복한 것이다. 그리고 레리가 묘사한 사바트는 서구인이 향유하는 사육제의 연장선에 있다. 세상의 저쪽 끝에서 활약하는 탐험가나 선교사에 관한 심상은, 바로 악령들림 사건에서 활동하는 퇴마사의 역할과 동일하다. 긴자꼬(vagina dentata) 색녀와 신들린 무녀로 충만한 야만세계에 대한 묘사는, 바로 악령으로 충만한 서구의 마법적 세계에 관한 묘사와 다를 바 없다. 한편 원주민 여인들은 근심걱정은 물론이고 수치심도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녀들은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벌거벗은 몸으로 출현한다.⁸⁰⁾ 이 묘사에는 지중해 바깥 대양에서 탄생하는 여신의 심상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원주민 여성들에 관한 이와 같은 묘사에는 마녀적 심상과 여신적 심상이 교차하여 출현한다. 여기서 여성은 ‘야만’의 지면을 나타내고, 환유적으로 ‘생산물’을 표상한다. 근대적 시간이 진행되어온 근본적인 과정은 본래 수용한 심상만큼 정복하는 것이었다. 이제 생산물로서 여성은 정복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서구의 관음적 시선 앞에 선 원주민 여성의 벌거벗은 몸 처럼, 장차 세계의 몸도 종교와 과학을 표방한 무장한 이단심문관들 앞에 전라의 모습으로 소환받고, 그녀의 신체는 식민화된 글쓰기의 축적 대상이 될 것이

78) Jacques Lacan, *Écrits*(Seuil, 1966), p. 787(Kant avec Sade).

79) Carla Freccero, “Toward a Psychoanalytic of Historiography: Michel de Certeau’s Early Modern Encounters,”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100(2001), pp. 368-369.

80) 식인 및 나체에 대한 묘사는 Jean de Léry, *op. cit.*, pp. 125-126 및 p. 66 각각 참조.

었다.⁸¹⁾ 여기서 우리는 근대사에서 서구의 타자가 겪은 정복과 진압의 고통에 대한 세르토의 윤리적 비판과 절규를 느낀다. 그 우울함은 한편으로는 서구인의 독단적 윤리학에 맞서 원주민의 장소와 시간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다.⁸²⁾

이 모든 출발은 타자의 목소리 듣기와 글쓰기에서 시작되었다. 목소리와 글쓰기는 서로 결합하며 이중적으로 작용하는, 담론의 구성 대상인 동시에 왜곡의 대상이다. 그곳에서 의미와 진실은 상호지원한다. “야만은 서구의 담론을 황홀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담론”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의미와 대상을 생산하는 과학은 무한한 글쓰기를 계속하기를 강요한다.”⁸³⁾ 거기서 타자의 장소가 지식의 용어로 번역된 허구 즉 ‘우화’의 과학을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세르토의 생각이다. 그것은 ‘종족지’ 형식으로 역사 인식에 개입한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 권위를 지닌 지식을 성취한다는 말은 아니다.

V. 결 론

편력적인 주변부 역사가 세르토의 역사서술론은 기존 지식과 제도의 경계선과 역사 인식을 동시다발적으로 미시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세르토에게 역사학의 학문적 성격은 ‘타자’에 관해 탐구하는 이중학이다. 근대사에서 타자의 출현은 절대종교의 분열로 다원적 사회 공간이 창조되고, 계몽의 합리성에 근거한 지배담론이 자신의 타자를 생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타자성은 계몽주의와 상호관계 가운데서 출현 하였다. 17-8세

81) Michel de Certeau, *op. cit.*, p. 245. 신역사주의자들은 레리의 저술에 대한 세르토의 해설에서 신역사주의의 선구적 업적을 발견한다. Jürgen Dieter, “Gazing at the Borders of *The Tempest*: Shakespeare, Gleenblatt and de Certeau,” in Nadia Lie & Theo D’Haen(eds.), *Constellation Caliban: Figuration of a Character* (Amsterdam, 1997), pp. 61-79.

82) 원주민 ‘타자’에 대한 이런 입장은 냉정하기 조차한 토드르프의 서구 중심의 피정복민 ‘타자’론과는 비교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Tzvetan Todorov, *La Conquête de l’Amérique*(1982); *The Conquest of America: The Question of the Other*, tr. by Richard Howard(U. of Oklahoma Press, 1999); *Les Morales de l’histoire* (1991); *The Morals of History*, tr. by Alyson Waters(U. of Minnesota Press, 1995), p. 33.

83) Michel de Certeau, *op. cit.*, p. 248.

기 유럽에서 마법과 악령들림 그리고 신비주의와 같은 ‘내적 타자성’의 교설과, 팽창적 식민주의를 자극하는 온갖 이국적인 ‘외적 타자성’ 담론의 난무는 바로 그것의 표현이다. 그 담론은 내적 구성에서 차이와 거리, 분열과 파편화라는 전망을 지니고, 외부적으로 개념이나 이념보다는 실천적 ‘행위’로 표현되었다. 세르토는 서구의 근대가 수행한, 이들 타자에 관한 글쓰기 방식을 탐구하여 서구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생산하려 시도하였다.

세르토가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은 역사를 텍스트화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다. 루딩의 악령들림이나 남미 원주민을 만난 항해자의 기록과 같은 텍스트를 역사화하여 고찰한다. 그렇다고 이런 텍스트들이 추상적이고 고립된 영역의 생산물이란 의미는 아니다. 텍스트는 사회제도적 전제들에 의해 구조화되고, 사회문화적으로 반복된 동의어와, 지배집단과 서구중심의 관점에서 ‘왜곡변경’된 기록이다. 기록은 ‘해석자’인 주체가 언어를 자기 것으로 ‘전유’한 권위적 지식의 산물이다. 역사가는 바로 이러한 재결합과 재해석, 전환과 왜곡을 포함하는 해석자의 텍스트 구성형식에 주목해야 한다. 그 구성에서 텍스트 내부에는 타자의 언어든 주체의 언어든 막론하고, 이중적 균열과 파열과 단절과 불일치와 단층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완전히 간파할 수 있는 지식의 대상은 아니다. 역사는 하나의 ‘우화’이며, 투명한 진실을 표현하지 않는다. 역사에 관한 지식은 결코 확실하지 않다.

구체적 사례로서 수녀들의 악령들림 사건은 ‘주체 안의 타자’가 출현한 전위 현상으로서 종교적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르토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종교적 우주에서 벗어나 국가이성적 질서로 편입되는 정치적 전략의 수행으로 귀결된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은 과거의 해석체계가, 변화한 패러다임 위에서 새로운 세계해석의 구조틀을 재생산하는 재채용 과정이다. 재채용 개념은 마치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개념과 유사하지만, 필자는 도리어 그 원천이 세르토가 애독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 있다고 판단한다. 재채용 과정에 대한 세르토의 강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텍스트에 원본은 없고 오직 수정된 개정판만 있을 뿐임을 말한다. 여기서 필자는 역사란 유사하게 모방된 현실의 나선형적 진행과정이라는 세르토의 암시를 읽는다.

세르토에게 타자성의 생산은 타자의 흔적에 대한 역사가의 현재주의적인 능동적 활동의 산물이다. 근대 서구의 기록은 종교 및 정치적 권력과 결합한 경전기록의 재생산과 확산의 역사를 은폐하고 있다. 그 결과 글쓰기는 해석

학적 도구에서 통제력으로 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미원주민에 대한 종족 지적 저술의 글쓰기에서 보듯 ‘주체 바깥의 타자’인 신세계의 타자들을 ‘야만화’하거나 ‘성애화’하고 때로는 ‘신비화’하였다. 그리하여 정복과 개종, 왜곡과 전위를 통하여 서구적 동일성으로 귀환시키는 작업이 바로 식민주의적 타자를 생산하는 과정이었다.

세르토는 글쓰기에서 형식적 조직화가 역사의 기초적 진실을 제공하리라 보지 않는다. 그의 글쓰기는 편력하는 이야기체 서사로 표현된다. 세르토가 추구하는 의미의 조직화와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전망은, 구조와 체계의 부단한 이행과 단절, 부재에 관한 전망조차도 부재하는 이중부재의 ‘미시전복’과, ‘이행과 전위의 시학’을 통한 사고의 행동화이다. 역사가가 글쓰기에서 전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텍스트에 관한 다원적 독해를 시도하기를 요구받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신역사주의⁸⁴⁾와 전망을 공유하는 지점도 이곳이다.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주제어: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역사서술론, 이종학(heterology), 타자(others), 타자성(alterity), 전위(displacement), 재채용(re-employment)

84) 많은 논문들이 그린블래트(Stephen Greenblatt)를 비롯한 신역사주의자들을 소개하면서 주로 미셸 푸코와 문화적 유물론자들로부터 그 사상의 원류를 끌어내는데 머무르는 오류를 범한다. 사실 그린블래트 자신이 세르토한테서 받은 영향력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침묵하는 이유는 무지한 탓이리라. 예컨대, Jürgen Pieters, “New Historism: Postmodern Historiography between Narrativism and Heterology.” *History and Theory*, vol. 39(2000), pp. 35-37.

<Resumé>

**Historiographie de Michel de Certeau :
L'écriture comme recherche sur l'Autre**

Se-Yong Jang

Michel de Certeau(1925-1986) à la fois jésuite, historien et théoriste culturel, il s'était consacré à l'ouverture d'un grand horizon de l'interprétation historique par l'histoire narrative. Historiographie de Certeau, en général, est une recherche sur l'altérité, fait par les européens en rencontrant les autres. La première apparition de l'autre a été le résultat de la division du monde catholique. Et puis le discours de l'altérité, essentiellement avait été produit par l'interaction en la Lumières. Nous trouvons les deux discours dans l'histoire moderne européens. L'un est l'altérité intérieure, qui est, par exemple, le sorcier, la possession et le mysticisme représentés dans son livre 『*La possession de Loudun*』(1970). L'autre est l'altérité extérieure, qui a parût dans son livre 『*L'Écriture de l'histoire*』(1975), qui naquit par l'expérience de la rencontre exotique en Amérique du sud.

La discours sur l'altérité, pour le Certeau, se présente par la différence, la distance, la division et la fragmenté au lieu d'une conception ou de l'idéologie. Par celle-ci, nous pouvons souligner les deux points chez de Certeau. Le premier, *le déplacement* qui apparût *l'autre dans le soi*, ainsi que l'incidence de la possession de Loudun se présente dans une soeur possédée par le diable. D'après de Certeau, cet incidence ne se finit pas une évènement religieuse. Il maintien que l'incidence était utilisé en tant que le stratagème politique par la monarchie absolue. C'est-à-dire, l'ordre religieuse se transfère en l'ordre politique, qui réalise la Raison d'État. Ce procès est conçu justement le *ré-emploi*, qui est produit par le changement du système de interprétation et qui invente le nouvel cadre structurel. Le ré-emploi implique qu'il n'y a, dans l'histoire, que l'éditions révisées sans aucun l'original. C'est parce que les textes européens modernes étaient toujours les *scripturaires*, reproduits et diffusés par le réseau des pouvoirs religieuse et politique. Le scripturaire joue le rôle qui transfère l'outillage de l'interprétation à la force de la contrôle. Par

exemple, les européens modernes accomplissent à produire *l'autre colonial* en amnipulant la conversion, l'altération et le déplacement afin qu'ils devaient des sujets *sauvage, erotique et mystique*.

La méthode de Certau signifie que l'on doit écrire l'histoire par le texte historique soi-même, tandis que l'on textualise de l'histoire. Ainsi, nous réalisons l'altération structurée et répétée des textes et des matériels par la vision conditionnée socio-culturellement et institutionnellement. La fabrication des matériels écrits est, dit de Certau, le résultat de *l'appropriation* par l'interpréteur qui a les connaissances autorisées.

K C I

<Summary>

**Michel de Certeau and History-writing as
an Investigation of Others**

Se-Yong Jang

A Jesuit, historian, and cultural theorist, Michel de Certeau(1925-86)'s works have opened newly horizons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by paying attention to the writing of narrative history. For Certeau, historiography in general rose from the Europeans' encounter with the unknown others and investigation to alterities which otherwise nominated as 『*Heterologies*』(1986). In modern history, the emerging of Others are at first resulted from the division of Christianity by the Reformation. And it was essentially produced by inter-action within the Enlightenment discourses. In modern European history, indeed, there are two kinds of discourses on alterities; the one is *interior alterity* which includes witchcraft and mysticism presented in his book 『*The Possession at Loudun*』(1970). And the other one deals with *exterior alterity* which indicates exotic meetings emerged with the New-World experience in his 『*The Writing of History*』(1975). Those discourses are, for Certeau, represented as *difference, distance, division and fragmentary*, regarded as a practical action rather than conception or ideology.

In the first book, a religious incidence at Loudun is represented as *displacement* that means *other within subject* of possessed nuns. Certeau claims that French monarchy could bring out political strategy to establish the absolute power in the nation by exploiting this displacement. In other words, religious world order would have shifted to political order which integrate multiple factors to the state power by realizing the State Reason. This process is the very *re-employment*, that reproduces new structural frame based on the change of paradigm of interpretative system about the world. The re-employment means that there isn't any original text but only revised editions. The texts of the modern Europe, in nature, are all reproductions and diffusion of *scriptural* writings associated with religious and political powers. The scriptural writings reappeared at each crucial moments, and transferred

from the interpretative instruments to controlling force. For example, modern Europeans have practiced the works of production for *colonialstic others* by calling them *savage, erotic and mystic*.

Certeau pursues not the textualization of history but historicizing the text itself by his own historiographical methods. This article focuses on his writings on the nuns' possession in the Ursuline in 1632-40 at Loudun, and a voyager's encounter with the natives in the shore of Brazil in 1558. Recorded texts or raw materials do not describe the transparent truth, rather it is an *alteration* which were to be repeated by institutionally and socio-culturally conditioned perspectives. The process of making recorded materials are regarded as resulting in *appropriative* production by authoritative *interpreters* of the subject. But within the text, Certeau argues, there are multiple *division, fragment, rupture, discord* and *cleavage*. The Annals School's *total history*, in Certeau's view, is not historian's proper purpose. Because, historical knowledge can never be complete nor sure. He sees the History as *fables* and *poetics*, like those practising the New-Historicism.

K C I